음운 변동 이란?

▷ 환경(음운적 환경, 형태적 환경)에 따라 음운이 변하는 현상. 변동 전후의 차이를 기준으로 네 종류의 변동으로 분류됨.

연음 이란?

▷ 앞 음절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면 앞 음절의 종성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는 현상. 음운 변동이 아님. 종성 관련 음운 변동에서 뒤에 오는 모음의 실질, 형식 형태소 여부가 중요.

▷ 연음 vs [여늠]

ㅈ/ㅓ/ㄴ/-/ㅁ ㅈ/ㅓ/ㄴ/-/ㅁ

변동 XX

변동 양상을 기준으로 나눈 음운 변동

- 교체
  - ▷ 음운 개수 변화 ×, 기존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대체됨.
- 탈락
  - ▷ 음운 개수 -1, 기존 음운이 소멸함.
- 축약
  - ▷ 음운 개수 -1, 기존의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짐.
- 첨가
  - ▷ 음운 개수 +1, 기존의 빈 자리에 하나의 음운이 추가됨.

교체

1. 음절의 끝소리 규칙 (음절 말 평파열음화)

▷ 음절의 종성에 올 수 있는 소리가 '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' 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.

이외의 자음이 종성에 오면 'ㅂ, ㄷ, ㄱ'로 교체됨.

X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.

▷ ~~ㅃ~~, ㅍ => ㅂ

ex) 무료 [무룝]

~~ㄸ~~, ㅌ, ㅅ, ㅆ, ㅈ, ~~ㅉ~~, ㅊ, ㅎ, => ㄷ

ex) 짙다 [짇따], 옷 [옫], 있다 [읻따]

낮 [낟], 옻 [옫], 히읗 [히읃]

▷ ㄲ, ㅋ => ㄱ

ex) 밖 [박], 해질녘 [해질력]

자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음운 규

조음 위치 / 조음 방법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파열음	평음	ㅂ	ㄷ		ㄱ	
	경음	ㅃ	ㄸ		ㄲ	
	격음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ㅉ		
	격음			ㅊ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▷ ㅃ, ㅍ → ㅂ

ㄸ, ㅌ, ㅅ, ㅆ → ㄷ

ㄲ, ㅋ → ㄱ

) 조음 방법만 바뀜.

▷ ㅈ, ㅉ, ㅊ, ㅎ → ㄷ) 조음 위치와 방법 모두 다 바뀜.

연음이 일어날 때의 음·끝·규 실현 양상

(조사, 접사, 어미)

▷ 비평파열음 받침 + 형식 형태소인 모음 = 그냥 연음

ex) 무릎에 [무르페]

옷이 [오시]

(조사, 접사, 어미 제외 나머지)

▷ 비평파열음 받침 + 실질 형태소인 모음

= 음·끝·규 실현 후 연음

ex) 무릎 위 [무르뷔]

옷안 [오단]

이러한 현상은 음·끝·규뿐만 아니라 종성의

제약에 의한 음운 변동에서는 다 일어남.

(자음군 단순화가 대표적임.)

다만, 이 현상의 예외가 있음.

- 맛있다 [마딛따/마싣따]

  이는 연음의 언어 생활을 반영한 것임.

- 다만, '맛없다'는 [마덥따]로

  제대로 발음됨.

교체

2. 자음 동화 - '비음화'

① 안울림소리의 비음화 (역행 동화) :

▷ 앞음절 종성의 'ㅂ, ㄷ, ㄱ'이 뒷음절 초성의 (음운상) 비음 'ㄴ, ㅁ (ㅇ은 초성에 못 옴.)'의 영향에 의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 'ㅁ, ㄴ, ㅇ'으로 변하는 현상. (음·끝·규 먼저)

ex) 밥물 [밤물], 닫는 [단는], 빅맥 [빙맥]

무릎 높이 → 무릅노피 → [무름노피]

같냐 → 갈냐 → [간냐]

놓는 → 논는 → [논는]

종꺼마 → 종꺽마 → [종껑마]

낯눈 → 난눈 → [난눈]

꽃말 → 끋말 → [꼰말]

부엌 내부 → 부억 내부 → [부엉내부]

자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안울림소리의 비음화

조음 방법 \ 조음 위치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파열음	평음	ㅂ	ㄷ		ㄱ	
	경음	ㅃ	ㄸ		ㄲ	
	격음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ㅉ		
	격음			ㅊ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▷ ㅂ, ㄷ, ㄱ → ㅁ, ㄴ, ㅇ) 조음 방법만 한 번 바뀜.

▷ ㅍ → ㅂ → ㅁ
ㅌ → ㄷ → ㄴ
ㄲ, ㅋ → ㄱ → ㅇ
) 조음 방법만 두 번 바뀜.

▷ ㅈ, ㅉ, ㅊ, ㅎ → ㄷ → ㄴ) 조음 위치가 한 번, 방법이 두 번 바뀜.

② 'ㄹ'의 비음화 (순행 동화와 상호 동화)

▷ i) 종성 'ㅁ, ㅁ' 뒤의 'ㄹ'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인 'ㄴ'으로 변함. (순행 동화) : ↗

ex) 금리 [금니], 종로 [종노]

ii) 종성 'ㄷ, ㄱ, ㅂ' 뒤의 'ㄹ'이 같은 조음 위치의 비음인 'ㄴ'으로 변함.

(이때 i과 다르게 파열음인 'ㄷ, ㄱ, ㅂ'의 조음 방법과 같아진 것이 아니므로 엄밀히 따지면 'ㄹ → ㄴ'의 과정이 자음 동화가 아님.)

그 이후 'ㄴ'의 영향으로 'ㄷ, ㄱ, ㅂ'이 'ㄴ, ㅇ, ㅁ'으로 변하는 안울림소리의 비음화가 일어남. (상호 동화) : ↗↙

ex) 몇리 → 멷리 → 멷니 → [면니]

격리 → 격니 → [경니]

급료 → 급뇨 → [금뇨]

ㅣㅣㅣ) 'ㄴㄴㄹ' 구조의 세 음절의 한자어의 경우. 일반적으로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지만 'ㄹ'이 'ㄴ'으로 변하는 비음화가 일어남.

(순행 동화) : ↗

※ 두 음절 한자어는 ㅣㅣㅣ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.

ex) 공권력 [공꿘녁], 입원료 [이붠뇨]

표현론 [표현논], 출산률 [출싼뉼]

권력 [궐력]

※ '산신령[산실령]'처럼 한자어 형성이 (口 + 冂) 구조이면 巛이 일어나지 않음. 위의 예시들처럼 (冂 + 력, 료, 론…) 구조여야 함.

자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'ㄹ'의 비음화

조음 방법 \ 조음 위치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파열음	평음	ㅂ	ㄷ		ㄱ	
	경음	ㅃ	ㄸ		ㄲ	
	격음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ㅉ		
	격음			ㅊ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① ▷ ㅁ, ㅇ 뒤의 ㄹ → ㄴ) 조음 방법만 한 번 바뀜.

② ▷ ㄷ, ㄱ, ㅂ 뒤의 ㄹ → ㄴ

바뀐 ㄴ 앞의 ㄷ, ㄱ, ㅂ → ㄴ, ㅇ, ㅁ

조음 방법만 두 번 바뀜.

③ ▷ 세 음절 한자어 ㄴ 뒤의 ㄹ → ㄴ) 조음 방법만 한 번 바뀜.

교체

3. 자음 동화 - '유음화'

▷ 'ㄴ'이 'ㄹ'의 앞, 뒤에서 'ㄹ'로 변하는 현상.

① 순행 유음화

ex) 칼날 [칼랄], 찰나 [찰라], 끓는 [끌른] (탈락 후 유음화)

② 역행 유음화

ex) 신라 [실라], 논리 [놀리], 권력 [궐력]

③ 순행 + 역행 (상호 동화 X)

ex) 물난리 [물랄리]

자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유음화

조음 위치 / 조음 방법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파열음	평음	ㅂ	ㄷ		ㄱ	
	경음	ㅃ	ㄸ		ㄲ	
	격음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ㅉ		
	격음			ㅊ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ㄷ ㄴ → ㄹ) 조음 방법만 바뀜.

교체

4. 된소리되기

i) 종성 'ㅂ, ㄷ, ㄱ' 뒤의 'ㅂ, ㄷ, ㅅ, ㅈ, ㄱ'
→ 'ㅃ, ㄸ, ㅆ, ㅉ, ㄲ'

ex) 밥솥 [밥쏟], 돋보기 [돋뽀기], 국밥 [국빱]
무릎도 [무릅또], 같다 [갇따], 부엌도 [부억또]
읊다 [읍따], 핥다 [할따], 읽다 [익따]

▷ '핥다' 와 같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
종성의 뒷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의 음운 변동

「핥다 → 핥다 → 핥따 → [할따]」
음·끝 → 된소리되기 → 자·단

'음 → 된 → 자단' 이라 외우면 됨.

ii) 어간 끝음절 종성 'ㄴ,ㅁ' 뒤의 어미 초성 'ㅂ,ㄷ,ㅅ,ㅈ,ㄱ'

→ 'ㅃ, ㄸ, ㅆ, ㅉ, ㄲ'

ex) 신발을 신다 [신따]

이때 표기가 동일한 체언이나, 접미사가 붙은 파생 용언의 어간을 조심해야함.

ex) 출생 신고 [신고] : 체언이므로 된소리되기 ××

신발을 신기다 [신기다] : 어간이 '신기-' 까지 이므로 어간 내에서 된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음.

iii) in 한자어, ㄹ 종성 뒤의 'ㄷ, ㅅ, ㅈ' → 'ㄸ, ㅆ, ㅉ'

ex) 갈등 [갈뜽], 일사천리 [일싸철리], 결재 [결째]

iv) 미래시제 관형사형 전성 어미 '-(을)'
뒤의 'ㅂ, ㄷ, ㅅ, ㅈ, ㄱ' → 'ㅃ, ㄸ, ㅆ, ㅉ, ㄲ'

ex) 먹을 것 [머글 껃], 둘 데 [둘 떼], 알 바 [알 빠]

v) 어말 어미 중 '~ㄹㅂ, ~ㄹㄷ, ~ㄹㅅ, ~ㄹㅈ, ~ㄹㄱ'

↓

'~ㄹㅃ, ~ㄹㄸ, ~ㄹㅆ, ~ㄹㅉ, ~ㄹㄲ'

ex) ~할밖에 [할빠께], ~할걸 [할껄], ~할세라 [할쎄라]
~할지라도 [할찌라도]

자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된소리되기

조음 방법 \ 조음 위치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파열음	평음	ㅂ	ㄷ		ㄱ	
	경음	ㅃ	ㄸ		ㄲ	
	격음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ㅉ		
	격음			ㅊ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○ 'ㅂ+ㄱ, ㄷ+ㄱ, ㅅ+ㄱ, ㅈ+ㄱ, ㄱ+ㄱ' → 'ㅃ, ㄸ, ㅆ, ㅉ, ㄲ'

조음 방법만 바뀜.

교체

5. 구개음화

▷ 종성의 'ㄷ, ㅌ'이 형식 형태소인 단모음 'ㅣ' 또는 반모음 'j' 앞에서 구개음의 파찰음 'ㅈ, ㅊ'으로 변하는 현상. 축약된 'ㅒ'도 마찬가지임.

▷ 실질 형태소 'ㅣ' 또는 'j'일 때는 'ㄴ' 첨가가 일어남.

ex) 굳이 [구지], 쇠붙이 [쇠부치], 같혀→가텨→[가쳐]

논이랑 밭이랑(형식) [바치랑] vs 밭이랑(실질) [반니랑]

X. 밭이랑 → 밭니랑(ㄴ첨가) → 반니랑(음운)

↓ 비음화

반니랑

자음 체계표로 분석하는 구개음화

조음 위치 / 조음 방법		입술소리 (순음)	잇몸소리 (치조음)	센입천장소리 (경구개음)	여린입천장소리(연구개음)	목청소리 (후음)
파열음	평음	ㅂ	ㄷ		ㄱ	
	경음	ㅃ	ㄸ		ㄲ	
	격음	ㅍ	ㅌ		ㅋ	
파찰음	평음			ㅈ		
	경음			ㅉ		
	격음			ㅊ		
마찰음	평음		ㅅ			ㅎ
	경음		ㅆ			
비음		ㅁ	ㄴ		ㅇ	
유음			ㄹ			

▷ 'ㄷ, ㅌ' → 'ㅈ, ㅊ') 조음 방법과 위치 모두 변함.

'조음 방법 + 조음 위치'가 변하는 변동

i) 음·끝·규 'ㅈ, ㅉ, ㅊ, ㅎ' → 'ㄷ'

ii) 구개음화 'ㄷ, ㅌ' → 'ㅈ, ㅊ'

나머지는 모두 조음 방법만 변함.

교체 중 순수 음운 변동인 것과 형태 음운 변동인 것

▷ 순수 음운 변동 (음운 환경만 갖춰지면 일어남.)

i) 음·끝·규 (다만, 연음과 관련될 때는 예외)

ii) 안울림소리의 비음화, 'ㄹ'의 비음화 ①, ②

iii) 유음화

iv) 된소리되기 ①

▷ 형태 음운 변동 (형태소, 어간, 어미, 한자어 등 음운 외적인 환경까지 갖추어져야 함.)

i) 연음 시의 음·끝·규 (실질 형태소 모음)

ii) 'ㄹ'의 비음화 ③ (한자어)

iii) 된소리되기 ②~⑤ (어간, 어미, 한자어)

iv) 구개음화 (형식 형태소 'ㅣ' 아 'j')